# 미군 가져간 신흥사 경판 '환지본처'

**3월 18일 美시애틀서 반환받아**
**1954년 락웰 씨 신흥사서 반출**
**반환 결심해 65년 만에 제자리**

**천도의식 · 의례 기록한 '제반문'**
**17세기 인쇄기술 확인 중요자료**



미군에 의해 반출됐다가 65년만에 반환된 신흥사 경판의 앞면(사진 왼쪽)과 뒷면(사진 오른쪽)의 모습. 해당 경판은 사찰 천도의식과 일상의례를 담은 '제반문'으로 양면에 내용이 새겨져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6.25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국외로 반출됐던 조선시대 경판이 65년만에 환지본처됐다.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주지 우송)는 "지난 3월 18일 미국 시애틀에서 반출됐던 신흥사 소장 경판 '제반문(諸般文)' 87~88장 1점을 반출 당사자인 리차드 B. 락웰(Richard B. Rockwell, 92세) 씨로부터 직접 돌려받았다"고 3월 26일 밝혔다.

신흥사 소장 제반문 경판은 1954년 당시 미 해병대 중위였던 락웰 씨가 수색정찰 중 신흥사에서 반출한 것으로, 그는 경판을 그해 11월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갔다.

이후 자택에서 경판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결심했으나 구체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지난 2018년 1월에 이르러 락웰 씨는 해병대 재직 당시 속초를 촬영했던 사진 279점의 기증 의사와 경판 소장 사실을 속초시립박물관에 알렸다.

이에 속초시립박물관은 지난 2018년 3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이하 국외재단)에 경판 사실관계 확인 및 환수를 요청했다. 이에 국외재단은 조사를 통해 신흥사 반출 경판임을 최종 확인했다. 확인 직후 국외재단은 신흥사에 경판 반출 경위와 자진 반환 의사를 전했고, 신흥사는 지난 3월 18일 미국 시애틀 현재에 조계종 총무국장 지상 스님(인천 능인사 주지)를 파견해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신흥사는 현재 미국 내 신흥사 불화 환수활동도 적극 나서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안 의원도 동행했다.

지상 스님과 안 의원은 락웰 씨의 자택에서 신흥사 경판을 실견하고 경판의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확인했으며, 자진 반환 결심을 한 락웰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돌아온 신흥사 소장 경판 1점은 사찰에서 이뤄진 천도의식과 상용의례를 기록한 '제반문' 경판이다. 신흥사에 전해오던 '제반문' 경판은 전체 88장으로 구성된 총 수량 44점 내외로 추정되나, 6.25전쟁을 전후로 대다수가 사라져 현재 신흥사에는 14점만 전하고 있다.

이번에 반환된 경판은 '제반문'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88장이 87장과 함께 목판의 양면에 새겨진 형태다.

'제반문' 경판은 17세기 조선시대 인쇄술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당대 사찰의 경전 간행 사실과 당시 승려들의 생활상, 불교의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특히 87장과 88장에 각각 시주자의 이름이 '연옥(連玉)', '김우상양주(金祐尙兩主)'로 확인돼 목판 조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도 추가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신흥사 측은 "이번에 돌아온 경판은 비록 1점에 불과하나, 전쟁과 같은 국가적 혼란기에 문화재의 우선적 보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지 새삼 일깨워 줬다"면서 "멸실된 줄 알았던 신흥사 경판을 뒤늦게라도 조건 없는 자진 반환방식으로 돌려준 락웰 씨의 양심적 행동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의 원상회복'이라는 난제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돌아온 경판은 3월 26일부터 설악산 국립공원 소공원 내에 위치한 신흥사 유물전시관 1층에 전시되고 있다.

# 보령 성주사지 동편 삼층석탑 보물 지정됐다

**문화재청 28일 지정 공고**
**천은사 극락보전 보물 예고**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이 보물로 승격 · 지정됐으며,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남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21호로 지정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또한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인 '천은사 극락보전'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이란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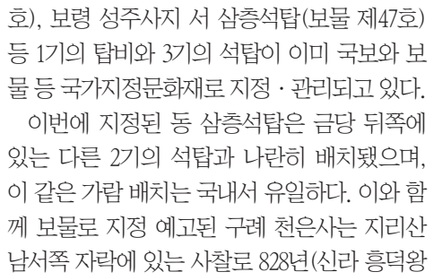
보물 제2021호로 지정된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4기의 탑 가운데 하나다. 847년 낭혜 화상(800~888, 신라 후기의 승려 무염)이 지은 성주사는 17세기까지 명맥이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에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와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보령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보물 제20호), 보령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보물 제47호) 등 1기의 탑비와 3기의 석탑이 이미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동 삼층석탑은 금당 뒤쪽에 있는 다른 2기의 석탑과 나란히 배치됐으며, 이 같은 가람 배치는 국내서 유일하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구례 천은사는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 있는 사찰로 828년(신라 흥덕왕 3년) 덕운선사에 의해 창건되어 감로사라고 불리다가 1679년(조선 숙종 5년) 조유선사에 의해 중창된 후 천은사로 사찰명이 바뀌었다.

천은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1774년(영조 50년)에 혜암선사가 중창하면서 세워졌으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문화재청은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역사 ·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보물 제2021호로 지정된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의 모습.

# 숨은 무형문화유산 찾습니다

**문화재청 신규종목 발굴 공모**

숨겨진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가 진행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능과 예능 등의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새로운 무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종목을 발굴하고자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전통 공연 · 예술 분야(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등) △전통기술 분야(공예, 건축, 미술 등) △전통지식 분야(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 · 우주지식 등) △구전 전통과 표현 분야 △전통생활관습 분야 △ 사회적 의식 · 의례 분야(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등) △전통놀이 · 축제와 기예 · 무예 등 7개 분야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내려받고 제안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종목들은 무형유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엄선된다. 관련 결과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042)481-4994 신성민 기자

# 인도 산스크리트어 제대로 배워볼까




**강성용 교수 '쌍쓰끄리땀 첫마당 1' 출간**
**우리말 문법 적용된 첫 산스크리트 교재**
**인도 현지 원어민 녹음 음성파일도 제공**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철학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어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재들은 외국어 교재를 번역한 것이나 영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 문법이 적용된 산스크리트어 교재가 발간됐다.

인도철학과 산스크리트어 전공자인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교재 두 권과 학습서 두 권으로 구성된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인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을 펴냈다.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저자는 10여 년의 산스크리트어 강의 경험을 기초해 이번 시리즈를 집필했다.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은 제목부터가 차별성을 보인다. 저자는 영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라는 명칭 대신 '쌍쓰끄리땀'이라는 원어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난 2011년 이미 〈빠니니 읽기: 인도 문법전통의 이해〉라는 단행본 저술을 출간하면서 고대 인도의 문법전통을 한국어로 소화화고, 인도고전어 서술에 필요한 한국어 용어를 만드는 사전작업을 해 낸 바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어로 된 제대로 된 쌍쓰끄리땀 교재가 전무한 상황에서 교재를 집필하며 두 가지 중요한 걸음은 내딛는데, 그 중 하나는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고대 인도의 문법전통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빠니니(Pāṇini)로 대표되는 고대 인도 문법전통은 현대에도 쌍쓰끄리땀을 배우는 정통적인 방식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빠니니 문법전통을 최초로 한국에 소개하기도 한 저자는 인도 전통 문법을 통해 학습자가 쌍쓰끄리땀이라는 언어의 구조와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은 순수한 우리말 문법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어 교재에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들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유럽 문법전통의 용어들이다. 저자는 명사의 속격, 여격, 대격, 탈격과 같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 대신에 보다 알기 쉬운 가짐격, 임자격, 대상격, 유래격 등의 용어를 사용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은 쌍쓰끄리땀 문법 입문서로 쌍쓰끄리땀의 발음과 문자(데바나가리), 모음과 자음의 싼디, 기초적인 명사와 동사의 활용법 등을 다룬다. 대학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14개 챕터로 이뤄져 있으나 동시에 학습자가 독학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연습문제도 담고 있다.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마당 I〉은 인도 문법 전공자가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쌍쓰끄리땀 교재이며 동시에 우리말 문법 용어를 체계적으로 확립한 교재라는 점에서 인도학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재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한국 최초로 인도 원어민의 쌍쓰끄리땀 녹음 파일을 제공해 학습자들이 쌍쓰끄리땀에 쉽게 친숙해질 수 있게 시도했다. 그래서 강성용 교수의 이번 교재의 쌍쓰끄리땀 원어 제목은 〈saṃskṛta-vākya-upakriyā〉, '쌍쓰끄리땀 언어로 이끌기'이다. 신성민 기자




BTN 불국토상조 "신상품" 출시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로 불자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안전합니다
- 불교TV가100%투자한 자회사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 (만기시 1년후 100% 환급)

편리합니다
- 전화한통으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 장례전문지도사 24시간 대기
- 전국 어디에서든 서비스 가능 (도서지역 제외)

경제적입니다
- 매월 합리적인 가격(월3만원)
- 물가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가입시 할인혜택
- 10인이상 단체가입시 할인혜택

신행입니다
- 입관 성복례 스님 직접 시다림
-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 제공
- 영가의 극락왕생 인도하는 장엄번 제단 설치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